



범 축산인이 하나가 된다면 미래 한국축산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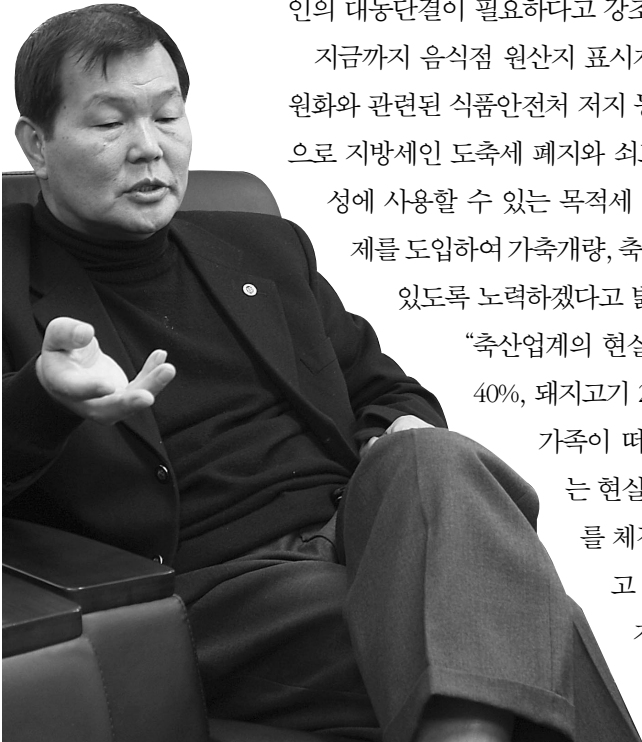
-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를 지키고, 한국축산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봉에 서 있는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만나 축산현황과 우리 축산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현재의 쌀 중심의 농업에서 축산중심의 농업이 될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남호경 회장은 단체, 축종, 업종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이견과 불 화음의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축산의 영역을 넓히고, 축산인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농지법 개정, 축산식품 가공업무 일원화와 관련된 식품안전처 지지 등 많은 축산현안을 해결한 남호경 회장은 앞으로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와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는 관세는 축산산업 육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그리고 생산단계부터 전두수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가축개량, 축산물 수급조절, 질병유입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계의 현실은 2001년 쌀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쇠고기 40%, 돼지고기 25% 등 관세만 남기고 개방화되어 많은 축산 가족이 떠났으며, 경쟁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FTA를 체결한다면 축산은 살아 남기 힘들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개방화시대에 맞는 예산확보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부나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축산에 대한 이미지, 즉 희망과 경쟁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변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축산인이 하나가 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는 한우두수 및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여 한우가격이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농가들의 기대에는 부족할 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3대 중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 “한우를 알리겠다” 즉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함을 충분히 알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 “유통 감시단 활동을 강화 하겠다”. 도별 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유통단계에서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FTA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도 쇠고기 유통문제 때문이다. 90%이상의 쇠고기가 불분명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쇠고기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질서확립은 정부에서 해야할 이하고 생각한다.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한우로 둔갑되는 쇠고기가 없다면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 “한우 판매점에 대한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러한 업무를 학계 및 관련업계의 지문을 받아 한우가격이 생산비이상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국제축산박람회는 한우협회가 행사를 주

관하게 되어 있지만 범축산인이 함께 하는 행사, 생산자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독일 하노버 세계축산박람회에 5개 단체장을 모시고 같이 참관한 이유는 선진 축산국의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세계에 한국축산을 알리고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싶은 의욕과 축산농가 전체가 방문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정부의 관료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비교우위론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 등 몇 개의 우량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마인드 아래 농업은 데모나 하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한 경향이 있지만 국토보존, 환경보존, 식량안보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산업이며, 현재는 위기의 축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농업과 연계되고 축산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리나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축산업의 밑거름이 되어 영역이 확대되고 우리산업이 발전할 있다면 만족한다”며 현재 전국한우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의 위치에서 업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 처음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리를 마무리했다.